

특특뉴스

구글 '접는 스마트폰' 공개

구글이 '접는' 스마트폰을 전격 공개했다. 구글은 1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 쇼어라인 엔피씨어터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폴더블폰인 '픽셀 폴드'를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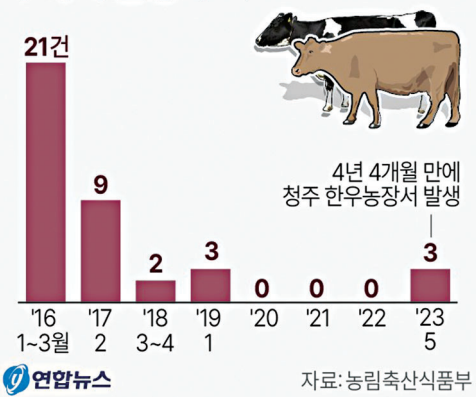
폴더블폰은 2019년 2월 삼성전자가 처음 내놓은 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다.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의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잇달아 접는 폰을 출시하기는 했지만, 주요 빅테크로는 구글이 처음이다.

구글은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픽셀 폴드도 한국에서는 선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 등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더블폰과 경쟁하게 된다.

그래픽 경제

구제역 발생 추이



4년여 만에 국내서 구제역 발생

충북 청주의 한우 사육 농장 세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것은 4년4개월여 만이다.

그동안 구제역은 2019년 1월 28-31일 3건, 2018년 3월 26일-4월 1일 2건, 2017년 2월 5-13일 9건, 2016년 1월 11일-3월 29일 21건이 발생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가성비 치맥은 옛말”...먹거리 부담 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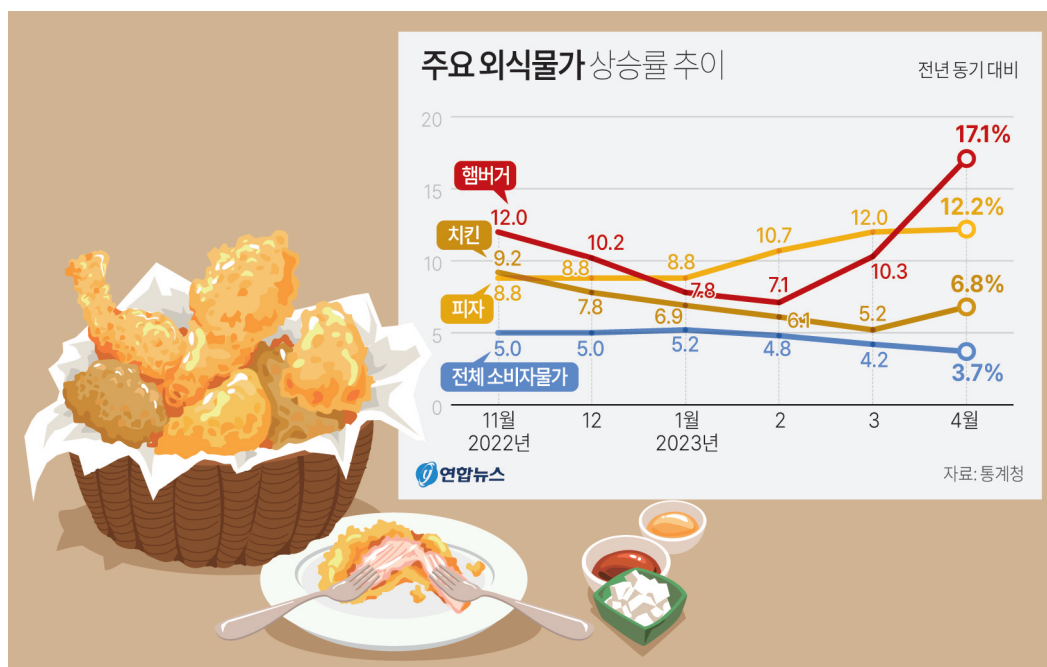
브랜드치킨, 배달 포함 3만원 육박
인상 체감 두드러져 국민간식 부담
반값·냉동치킨 등으로 수요 이동

직장인 A씨는 최근 프루야구 경기가 있는 날 집에서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려다 깜짝 놀랐다.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여겼던 2만원을 넘는데 배달료에 생맥주까지 더하니 3만원에 육박해서다.

A씨는 “치킨은 여전히 국민 간식이라 생각했는데 2만원을 넘으니 왠지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더운 여름 퇴근길, 치맥 한 잔에 피로를 씻곤 했는데 올 여름엔 그렇게 자주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달, 모 프랜차이즈 치킨이 가격을 인상했다. 닭고기 물가 상승률이 수개월째 10% 선을 상회하고 있는데다 밀가루와 식용유, 원자재와 인건비 등 생산비용 증가가 주된 이유다.

아직 다른 주요 치킨 브랜드들은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국내 닭고기 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어 한계에 다다른 업체들이 향후 추가로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지 소비자들은 벌써부터 우려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때문에 브랜드 치킨이 아닌 중저가 치킨이나 냉동프라이드 치킨 등을 대체상품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커머스 가격비교 전문 기업 다나와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에서 거래된 즉석 가공·냉동식품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냉동 프라이드 치킨, 바팔로링 등 냉동치킨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84% 급증했다. 같은 기간 냉동순살 치킨 판매량도 68% 뛰었다.

또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반값 치킨도 울들어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마리에 9,980원에 판매하는 이마트 '생생치킨'은 지난달에만 10만개를 팔았다. 롯데마트 즉석코너 치킨 또한 지난 달 매출이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했다.

대학생 B씨는 “브랜드 치킨을 안 시켜 먹은 지 오래됐다.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집 근처에서 맛있고 가성비 좋은 치킨을 사 먹을 수 있어서”라고 말했다. 그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냉동치킨도 편리하게 먹을 수 있어 종종 사 먹는 편”이라며 “외식물가가 모두 오르고 있으니 치킨값도 올라가는 게 이해는 되지만 치킨이나 햄버거같은 음식들은 다른 음식들에 비해 오르는 정도가 너무 확연히 보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닭고기 가격의 질주를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때문으로 분석한다. 닭고기 소비는 늘어나는데 생산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의 매장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오른 것도 가격 인상 이유로 꼽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졌고, 공과금과 배달료 상승도 가세한다.

소비자 C씨는 “치킨은 없어서는 안되는 국민 먹거리인데 가격을 적절히 맞춰 부담없이 이용하는 음식이 됐으면 좋겠다”며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도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바로 전가시키기 보다는 유통마진 등을 조정해 본사에서 방법을 찾아본 후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이면 거부감이 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광주은행, '넋이' 판매 수익금 2천만원 기부

5·18재단에 3년간 6천만원 전달
“지역사회 발전 기여 금융상품 개발”

광주은행은 최근 5·18기념재단에서 조현기 광주은행 부행장과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넋이 5월, 그날을 기억하며(이하 '넋이 예·적금')'의 판매 수익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넋이 예·적금' 상품 판매를 통한 수익의 일부분을 2021년부터 3년 연속 기부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6,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넋이 예·적금'은 2020년 12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제40주년을 맞아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출시한 '넋이통장'의 전용 상품이다. 통장 표지 및 속지에는 구 전남도청, 현 광주은행 자리에 위치했던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국립 5·18 민주묘지, 5·18 민주광장, 전일빌딩 등 5·18 사적으로 지정된 곳의 이미지를 담아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조현기 광주은행 부행장은 “우리 지역의 역사적 순간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넋이 예·적금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고객과 지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은행은 최근 5·18기념재단에서 '넋이 예·적금'의 판매 수익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조현기 광주은행 부행장. /광주은행 제공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다

우리동네 빵집에서 인공지능 까지!!



당신의 내일을
함께 그려봅니다

창업의 가치를 더해 함께 성장하고,
스타트업의 꿈을 함께 실현하는
동구창업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4 (서석동)
TEL. 062) 608-3991~3993
FAX. 062) 608-2719

광주주얼리지원센터

주얼리 소공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주얼리를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 및 다양한 지원

www.gjewelry.or.kr

1F · 주얼리 전시판매장
· 주얼리 체험공간

2F · 공용장비실

3F · 교육실
· 세미나실
· 바이어 상담실
· 운영사무실

광주주얼리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62-1 (충장로 5가)
TEL. 062) 608-3994
FAX. 062) 608-2719



- 1 창업지원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정책 수립
- 2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실현하는 공간
- 3 창업을 위한 모든 서비스와 협업 네트워크 연결

- |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 청년창업허브사업 | 마을공방운영사업 | 일자리공유카페 |
|-----------------------------------|---|--------------------------------|----------------------------------|
|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창업교육, 자금상담 등 |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및 협업공간 지원 | 공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공간 지원 |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육성 및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